

# 전북도 8956억 재정 손실 방지 기여

### 두세훈 도의원, 대표발의 '도의회 균특이양사업 한시적 보전기간 연장 건의안' 국회 관련 개정법안 통과돼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는 오는 2023년부터 4년 동안 8,956억원에 이르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원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균특이양사업'의 한시적 보전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 건의안을 정부가 수용하고, 국회가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도



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매년 2,239억 원의 균특이양사업비를 계속 보전받게 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이 2022년 종료되면, 종전에 비해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북도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정부가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 변경 촉구 건의안'을 수용해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 비용 등의 보전기간을 2026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등의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따라, 도민의 생명·안전·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세훈 의원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균특이양사업의 한시적 보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는데, 2단계 재정분권에 반영돼 지방 재정운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오는 2026년까지 기간 연장 또한 한시적 지원에 불과해 앞으로 '균특이양사업'이 영구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정읍·고창 신규예산

#### 6321억원 정부예산 반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9일 총사업비 약 6,321억원 규모(22건)의 정읍·고창지역 신규예산이 2022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됐고 밝혔다.



이는 정읍·고창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역대급 성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확정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읍시는 총사업비 약 2,270억 규모의 신규사업 12건이 반영됐으며, 고창군은 총사업비 약 4,051억 규모의 신규사업 10건이 반영됐다.

윤준병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전북도 및 정읍시·고창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무엇보다 다수의 주요 신규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지역발전 위한 중장기 마련된 것과 같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수소트럭 설명 듣는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원주군 테크노파크스미트융합기술센터를 방문해 현대 수소트럭 설명을 듣고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수홍 의원 "K-푸드의 수도로 거듭날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업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품의 분업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간 연장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20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도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홍 의원은 "국식품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BTS가 K-POP 열풍을 이끈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농민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농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인 대령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을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김수홍 의원은 "농업 지역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확대되도록 노력해 농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정운천 의원 "전북 예산 확보"

#### 국회 동행의원들과 함께 이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가 예산안이 통과되며, 전북도는 8조 9,368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고자 2022년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공개하고, 문제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해 민생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가피하게 전북의 사업 중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5건이 포함됐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북에 보여준 행보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 당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해당 사업들을 100대 문제사업에서 제외시켜 전북 예산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도 이번 예산심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종배 의원(원주군 동행)을 중심으로 6명의 전북동행 예결위원들이 본인의 지역구 예산과 함께,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김승수 의원(전주시 동행), 최형두 의원(정수군 동행)의원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다.

정운천 의원은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국민의힘 전북동행 예결위원들이 함께 노력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 법인 등 세액감면 2년 연장

###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9위기와 지속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속에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한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까지만 공제하도록 두고 있어 법



개정 요구가 지속 있어 왔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가 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계의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축산업 분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적용해 나가고, 문제점들은 즉각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예산 심의 분석 특강

전주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 5층 간담회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올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 강사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예산 심의 분석 특강을 통해 경상경비 절감과 선심성·전시성 사업의 폐지 필요성, 과잉투자 등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연찬회를 바탕으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 지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올해 3회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김윤상 기자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던 해외봉사활동을 캄보디아 현지 NGO기관인 하찬캄과 연계해 도내 대학생 20명과 함께, 온라인 비대면 봉사활동을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3회를 진행했다.

##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전북도 자원봉사센터, 캄보디아 비대면 봉사 진행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던 해외봉사활동을 캄보디아 현지 NGO기관인 하찬캄(HACHAN CAM)과 연계해 도내 대학생 20명과 함께, 온라인 비대면 봉사활동을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회 총 3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해외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주민 및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료와 매뉴얼 등을 제작해 전달하고, 현지 기관과 줌(ZOOM)으로 연결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생리대 구입이 어려운 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면 생리대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으며, 비 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위생바나 만들기 와 에코백 만들기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 및 건강 증진을 도모했다.

또한, 현지주민을 대상으로 면 마스크 만들기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김광호 센터 이사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이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 더불어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통해 전북도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전북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우범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지난 2일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다섯 번째 일정으로 한옥호텔 '왕의 지밀'과 전주 미용문화 선도 기업 '제일직업전문학교'를 방문했다. 사진은 우 전 부지사가 제일직업전문학교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전주천을 '빛의 강'으로"

### 우범기 전 정부부지사,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일한 왕의 지밀·제일직업전문학교 찾아 애로사항 청취

우범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지난 2일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다섯 번째 일정으로 한옥호텔 '왕의 지밀'과 전주 미용문화 선도 기업 '제일직업전문학교'를 방문했다.

'왕의 지밀'은 지난 2019년부터 한국관광공사 주관 코리아유니크메뉴에 3년 연속 선정된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국제회의 장소이자, 천연 전주 한옥체험 명소 한옥 숙박호텔로 각광받고 있다.

'왕의 지밀' 이근혜 대표는 "천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의 버스 노선에 한계가 많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 확장이 우선시 됐으면 한다"면서 "썬드 코로나19대로 접어들면서 연말 행사 및 송년회 모임이 잦아질 시점이다. 전주천을 비롯해 한옥마을 등 가로등이나 조명 부족으로 관광객 안전 문제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천을 비롯해 버스 노선, 도로 등 한옥마을과 연계한 개발이 시급하다"며 "행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애로사항을 밝혔다.

이에 우 전 부지사는 "밝은 도시 연계 발전 키워드로 전주천을 '빛의 강'으로 만들아가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나은 전주 보다 잘 사는 전주를 위해 현장의 중요성을 알고,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릴레이 탐방을 시작한 것"이라고 기업 방문의 취지를 언급했다.

한편, '제일직업전문학교'는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신생 기업유예도 미용실 '이철해커'를 바탕으로 가격·퀄리티 등 전주 미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제일직업전문학교 전준미 대표는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용 창출 우수 기업이 돼 왔다"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제외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혜택을 받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우 전 부지사는 "서비스 산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만, 서비스 산업 포괄 범위가 다양하고 방대하다는 것과 서비스 산업에 나타날 미래 변화 모습을 파악해 변화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